

I. 주간 경제 동향

- 외국인 투자 자금과 경상수지 흑자 자금의 시장 유입으로 외환 시장은 안정화되고 있고, 외환 유동성 위기가 진정되고 있음. 단, 구조조정에 따른 위기가 심화될 경우 환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음
- 자금시장에서는 여전히 고금리와 자금경색 현상이 지속됨으로써 기업 부도 현상이 확산되고 있음. 구조조정에 따른 위기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앞으로도 고금리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외환 유동성 위기는 진정되고 있으나, 고금리 및 자금경색과 이에 따른 실물 경제의 부진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 (외환시장 동향) 한은의 외화 지원 창구가 2월 중 폐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주식·채권 투자자금과 경상수지 흑자 자금의 시장 유입으로 외환 수요는 시장에서 해소되고 있음.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도 1,400원 대를 유지하였고, 한때 1,300원 대까지 진입하기도 하였음. 3월 12일 현재 가용외환보유고는 202억 달러를 기록함
 - 3월 중에도 무역수지 흑자 기조가 유지되고 있어(15일 현재 약 10억 달러 수준) 외환 수급 상황이 호전됨
 - 단기 외채의 만기 연장(3월 16일 현재 만기 연장 대상 226억 달러의 97% 연장)과 '뉴머니'의 유입으로 외환보유고의 6월 말 목표치인 300억 달러를 4월 중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160억 달러 규모의 뉴머니 조달 계획: 3월-IBRD 자금 20억 달러, 4월-외평채 30억 달러, G7 지원자금 80억 달러, 미국제은행의 신디케이트론 30억 달러)
 - 외국인의 적대적 M&A 조기 허용, 부동산 시장 개방 등 정부의 적극적 외자유치 대책에 따른 심리적 기대감도 환율 안정에 기여
 - 중국, 일본, 동남아 등에서 불안 요인이 다시 부상하거나 구조조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경우 환율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음
- (자금시장동향) '고금리 및 자금경색→기업부도→실물 기반 붕괴→금융권 부실화 가속'의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음
 - 회사채금리는 여전히 18%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자금경색 현상은 더 심화되고 있음
 - 그에 따라 부도율이 높아졌는데, 서울지역의 경우 2월 중 부도율(금액 기준)은 0.68%(1월 0.58%)이고 3월 3일 현재 부도업체수는 193개로 사상 최대를 기록함
 - 1월 말 현재, 민간기업의 총금융부채는 현재 약 528조 원, 순부채는 349조 원으로 금리 1% 상승시 순이자자금비용은 연간 약 3.5조 증가함.(금융연구원 조사)

- 20%대의 초고금리가 지속될 경우 부도율 0.75%, 연간부도업체수 5만 개로 추정
- 기업들은 대량해고와 임금삭감으로 고금리의 부담을 덜려하고 있음. 금리 상승에 따른 추가 금융비용은 인건비의 63%에 해당됨(전경련 조사)
- 이와 같은 기업부도의 여파는 금융권으로 파급되고 있음. 2월 중 회사채부도율은 15.31%로 12월의 11.54%보다 3.77%나 높아져, 회사채 지급보증을 썼던 증권회사들의 대지급금 규모가 97년 12월 말 현재 이미 1조 5,612억 원에 달하였음
- **(향후 금리 전망)** 정부는 IMF와의 금리 인하 협상을 앞당겨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IMF는 1,400원대의 환율이 적어도 2~3주는 지속되어야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환율이 안정된다고 하더라도, 금리인하쪽은 소폭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정부와 한국은행도 구조조정을 위해 금리의 큰 폭 인하는 어렵다고 보고 있음
- 부실채권 인수 및 실업기금 확충을 위한 국채 발행이 약 30조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데, 국채 발행이 본격화되면 비우량기업의 회사채나 금융채(할부금융채, 리스채, 종금채 등)의 소화가 어려워져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 정부는 IMF와의 금리 인하 협상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고금리가 지속되는 경우에도 대비하여 산업 기반 및 성장 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할 것으로 보임

○ **외환위기와 내수불황으로 97년 경제성장을 큰 폭 하락**

- 지난 3월 18일 한국은행은 '97년 국민계정을 발표했는데 그에 따르면,
- 실질GDP 기준 경제성장률이 92년(5.1%) 이후 5년만에 최저 수준인 5.5% 기록. 외환위기가 시작된 4/4분기의 경우 3.9% 성장으로 둔화
- 1인당 GDP 크게 감소
 - 성장 둔화와 18.2%에 달한 환율 상승으로 97년 1인당 GDP는 9,511달러로 2년만에 1만달러 아래로 떨어졌음
 - '98년에 원/달러 환율 연평균 1,400원, 성장률 0%를 가정할 경우, 1인당 GDP는 7,000 달러 이하로 낮아질 것임
- 대외부문과 내수부문의 차별화 심화
 - 총수출이 23.6% 증가, 설비투자 11.3% 감소, 민간소비 3.1% 증가
 - 98년의 경우에도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민간소비는 5% 이상, 건설투자는 10% 이상, 설비투자는 25%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총수출은 1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94~97년도 국민계정 >

	94	95	96	연간	97(잠정치)			
					1/4	2/4	3/4	4/4
경제성장률	8.6	8.9	7.1	5.5	5.7	6.6	6.1	3.9
민간소비	7.6	8.3	6.8	3.1	4.2	4.8	4.8	-1.0
설비투자	23.6	15.8	8.3	-11.3	-0.2	-1.8	-12.7	-28.2
건설투자	4.5	8.7	6.1	2.7	0.8	1.8	3.8	3.7
국내총생산(GDP) 조원 (억 달러)	306.0 (3807)	352.0 (4565)	389.8 (4844)	421.0 (4,426)	-	-	-	-
1인당 GNP(달러)	8,476	10,037	10,543	9,511	-	-	-	-
총 수출	16.5	24.0	13.0	23.6	13.5	27.2	33.2	20.8
총 수입	21.7	22.0	14.8	3.8	8.1	7.3	4.7	-4.0

○ 경제 지표 추이

- 원/달러 환율: 3개월만에 달러당 1,300원대 진입

· 경상수지 흑자 확대, 외국인 채권 투자자금 유입 증가 등에 힘입어 환율은 97년 12월 30일 이후 3개월만에 달러당 1,300원대에 진입하였음.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며, 금리의 하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임. 3월 23일 종가 달러당 1,366.0원 기록

- 주가: 하락세 지속

· 최근 환율이 안정됨에 따라 금리의 하향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음. 이에 따라 주식투자보다는 채권투자가 유리하다는 인식 때문에 외국인 중심으로 투자자금의 이동이 이루어지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음. 3월 23일 현재 종합주가지수는 511.9 포인트 기록

- 금리 : 회사채 수익률, 5일째 18.5%대에서 보합

· 외환시장의 안정세 지속에 따라 향후 시중금리의 하향 안정세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임.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18%대 이하로 추가 하락은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장기적인 낙관론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채권 거래가 부진한 가운데 회사채 수익률은 5일째 18.5% 유지. 3월 23일 현재 회사채 수익률 18.50% 기록

- 엔/달러 환율 : 상승세 지속

· 엔/달러 환율이 3월 18일 130엔 선을 넘어섬에 따라 일본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그러나 4월초에 발표될 일본 정부의 추가 경기부양책에도 대규모 감세조치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엔/달러 환율의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3월 23일 현재 130.48엔 기록

< 國內 經濟 指標 >

		97년	98.1월	2월	3월 23일	98년 전망치 (기간 평균)	최근 추세	원 인	
실 물 지 표	무역 수지 (통관기준,억불)	-80.1	15.0	48.5	-	179~187	흑자 지속	수출 증가, 수입 급감	
	경상 수지 (억불)	-88.5	30.6	69.4	-	203~211	흑자 지속	무역수지 흑자 무역외수지 흑자	
	가 가	소비자물가 (전년동기비,%)	6.6	8.3	9.5	-	9.2~10.3	급등	환율 상승
		생산자물가 (전년동기비,%)	10.9	15.2	17.7	-	11.3~12.3		
		실업률(%) (월별 계절조정)	2.6	4.1	4.5 (추정)	-	5.8	급등	부도 급증, 감원 확산
금 융 지 표	환 율	₩/\$ 기준을	1,415.2	1,688.8	1,640.1	1,457.00	상:1,500 하:1,300	하락	외채 만기 연장 호조, 수급 개선
		₩/\$ 증가	-	-	-	1,366.00			
		₩/\$	130.57	126.95	126.08	130.48	상:132~134 하:130~132	상승	日 내수 침체 지 속
	금 리 (%)	RP 금리	35.0	29.0	24.2	24.0	-	인하 가능성 증대	
		회사채수익률	28.98	18.50	20.50	18.50	상:20~21 하:16~17	하락	환율 안정, 외국 인 투자자금 유 입
		CP 수익률	35.00	21.00	24.50	23.00	-		
		당좌대출금리	35.01	28.15	-	-	-		
	종합주가지수	376.31	567.38	558.95	511.90	상: 580 하: 650	하락	외국인 자금 채 권투자로 이동	
	외환보유고 (억불)	204.1 (88.7)	235.2 (123.6)	267.2 (185.4)	-	510 (400)	증가	외채 만기 연장 호조, 경상수지 흑자,	

주: 1) 환율, 금리, 종합주가지수, 외환보유고는 기말 기준
 2) 무역수지는 연간 누적 수치임
 3) 외환보유고의 ()는 가용외환보유고(외환보유고-해외점포 예치금)를 나타냄

(전 병 유 bycheon@hri.co.kr ☎724-4011)